

2025년 1/4분기

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(BSI) 조사

2024. 12.



< 조사개요 >

1. 조사명

- 2025년 1/4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(BSI) 조사

2. 조사목적

- 분기별 지역 제조업체의 체감경기 파악 및 경기 예측
- 경기 흐름에 따른 정부 및 지자체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 제시

3. 조사대상

- 부산지역 주요 제조업체 500개체(※유효 응답 업체 251개체)

4. 조사방법

- 전화 및 FAX를 통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

5. 조사내용

- 전반적인 체감 경기
- 매출, 영업이익 등 부문별 전망
- 주요 업종별 전망

6. 주의사항

- 각 항목의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비율의 합이 100.0%가 되지 않을 수 있음

7. 기업경기전망지수(BSI)의 의미

$$BSI = \frac{\text{호전(증가)표시업체수} - \text{악화(감소)표시업체수}}{\text{총 유효응답업체수}} \times 100 + 100$$

- ※ BSI 기준치는 100이며, 100을 초과할 경우는 호전으로 표시한 업체가 악화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, 100 미만일 경우는 그 반대임

1 2025년 1/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(BSI)

■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'66' 으로 코로나19 이후 최저, 대내외 경영환경 불확실성 확대, 내수부진 심화 및 수출 감소 등의 영향 지속

○ 2025년 1/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'66' 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 만에 최저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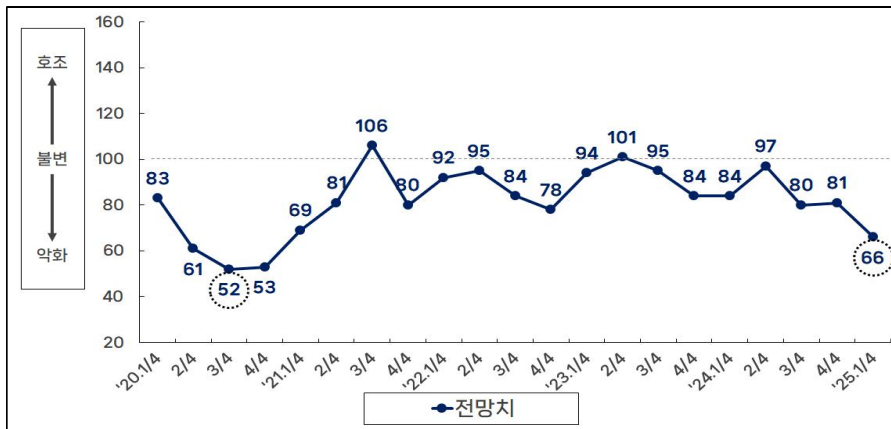
-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 된 2020년 3분기(52) 이후 4년 만에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최저
- 이는 국내 정책 불확실성 확대와 고물가 등으로 인한 내수부진 장기화, 美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, 수출 둔화 등 다방면에서 불안요인이 증가함에 따른 지역 제조업의 경기부진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
- 형태별 BSI는 1)수출기업 '80', 2)내수기업 '60' 으로 나타남
- '24년 4분기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, 고환율, 對美 수출관세 증가 우려 확대 등으로 인해 지역 제조업은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모두 경기부진을 전망
- 특히, 환율 상승은 수출기업에 호재로 작용한다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원자재 수입비용 증가와 원가 인상분 반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수출기업 또한 경기전망지수가 기준값(100)을 하회

○ 2024년 4/4분기 제조업 경기실적지수 '70' 으로 전분기 대비 16p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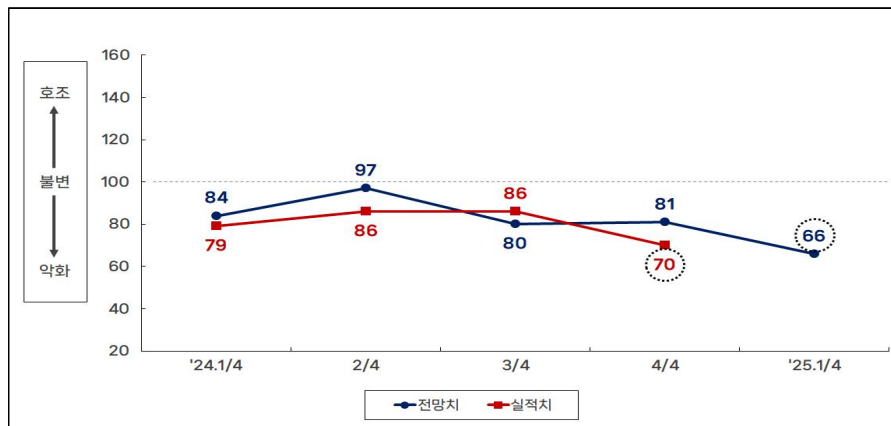
- 전·후방산업의 업황부진 및 중국산 저가제품의 유입 확대 등으로 지역기업 실적 또한 크게 감소하면서 경기실적지수가 1년 중 최저 수준

1) 수출이 전체 매출의 50%이상을 차지하는 기업
2) 수출이 전체 매출의 50%미만을 차지하는 기업

<최근 5년간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(BSI) 추이>



<최근 1년 분기별 BSI 실적 및 전망 추이>



○ 2025년 1/4분기 경기악화 전망이 우세하면서 경기부진 장기화 우려

- 지역 제조업은 2024년 4/4분기 대비 경기악화를 전망하는 업체가 51.4%(129개사)로 과반을 차지
- 전분기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한 업체는 31.1%(78개사)로 전분기(55.2%) 대비 크게 줄면서 제조업 경기부진 시사

< 2025년 1/4분기 경기전망 응답 분포 >

(단위: 개사, %)

구분	호전	불변	악화	계
응답업체 수	44	78	129	251
구성비	17.5	31.1	51.4	100.0

2 경영 부문별 전망

■ 전기료·인건비 부담 가중 및 소비위축 등 경영환경 악화 영향으로 매출,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 악화 전망

○ 매출(75), 영업이익(73)

- 부산지역 제조업은 글로벌 소비위축, 수출감소, 환율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 부진 전망
- 특히, 금리인하로 인한 자금조달비용 경감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등 각종 비용 증가로 지역 제조업 부담 가중
- 한편, 화학·고무업종은 고무 수요 증가 및 화학·고무제품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영업이익 호전

○ 설비투자(79), 자금사정(75)

- 국내 정책 불확실성 확대, 내수부진 및 고환율의 영향으로 전 업종에서 설비투자 및 자금사정 부진 전망
- 지역 제조업은 차입금 축소, 재고관리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대응

< 부문별 BSI 변화 >

구분	실적		전망	
	'24.3/4분기	'24.4/4분기	'24.4/4분기	'25.1/4분기
체감경기	86 →	70	81 →	66
매출액	86 →	73	82 →	75
영업이익	86 →	73	83 →	73
설비투자	89 →	83	90 →	79
자금사정	86 →	75	90 →	75

3 주요 업종별 전망

■ 전기·전자 제조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경기 부진 전망, 대내외 리스크 뿐 아니라 내수부진으로 인한 업황 악화 우려 증가

○ 화학·고무(88)

- 원자재가와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거나 환율변동 폭 확대와 내수부진 장기화 등으로 업황 부진 전망 우세
- 특히, 건설업 부진과 고무 등 원자재가격 상승, 판매관리비 증가로 인해 업황 불투명 전망

○ 자동차·부품(52)

- 자동차·부품 제조업은 가계부채 확대, 전기차 인센티브 감소 등으로 인한 자동차 내수 감소와 전기차 캐즘으로 인한 글로벌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'25년 1분기는 업황 부진을 전망
- 또한,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 악화가 자동차 업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역 자동차·부품 제조업에도 여파가 있을 것으로 전망

○ 섬유(60), 신발(60), 의복·모피(47)

- 글로벌 소비 위축 및 소비시장 경직으로 인한 재고 증가로 '24년에 이어 '25년 1분기에도 경기부진을 전망

○ 조선·기자재(83)

- 조선·기자재 제조업은 가격 경쟁 심화,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부담, 구인난 지속의 영향으로 '25년 1분기 업황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

○ 전기·전자(100)

- 건설업 부진 및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 관련 제조업은 경기 둔화를 전망하는 한편, ESS, AI 등 신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한 변전·변압기 관련 일부 기업의 경기 호전 기대감으로 경기전망 지수는 보합

< 주요 업종별 BSI 변화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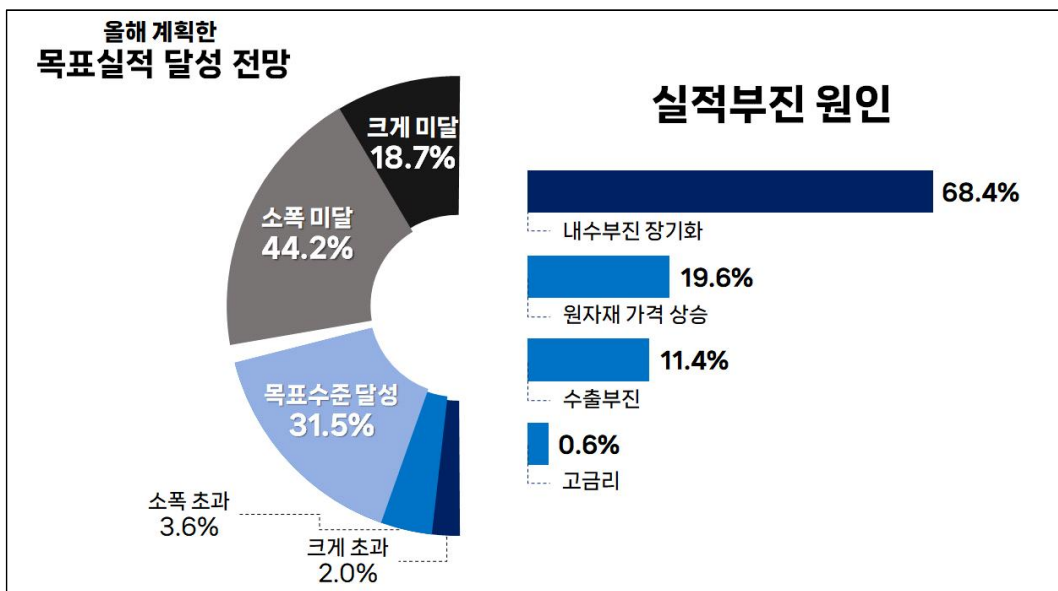
구분	실적		전망	
	'24.3/4분기	'24.4/4분기	'24.4/4분기	'25.1/4분기
음·식료품	80 →	67	60 →	60
섬유제품	107 →	53	86 →	60
의복·모피	60 →	47	67 →	47
신발제품	67 →	47	67 →	60
화학·고무	85 →	71	115 →	88
1차금속	72 →	48	64 →	44
조립금속	71 →	80	57 →	80
전기·전자	110 →	90	95 →	100
기계·장비	103 →	85	93 →	62
자동차·부품	75 →	69	71 →	52
조선·기자재	110 →	93	100 →	83

4

실적 목표

- 연초 계획한 올해 실적(영업이익 기준)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과반
 - 금년 실적 목표치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62.9%로 전년(45.8%) 대비 17.1%p 높은 것으로 나타남
 - 이 같은 실적 부진은 내수부진 장기화(68.4%), 원자재 가격 상승(19.6%), 수출부진(11.4%) 등 경영환경 악화가 지역기업 목표실적 미달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임
 - 구간별로, 크게 미달(10%이상) 18.7%, 소폭 미달(10%이내) 44.2%, 목표수준 달성 31.5%, 소폭 초과달성(10%이내) 3.6%, 크게 초과 달성(10%이상) 2.0%로 집계
 - 특히, 2024년 상반기부터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슈퍼사이클 진입으로 인한 실적 상승 기대감을 높인 조선·기자재업에서도 원자재 가격 상승과 구인난 등으로 인해 올해 목표실적에 미달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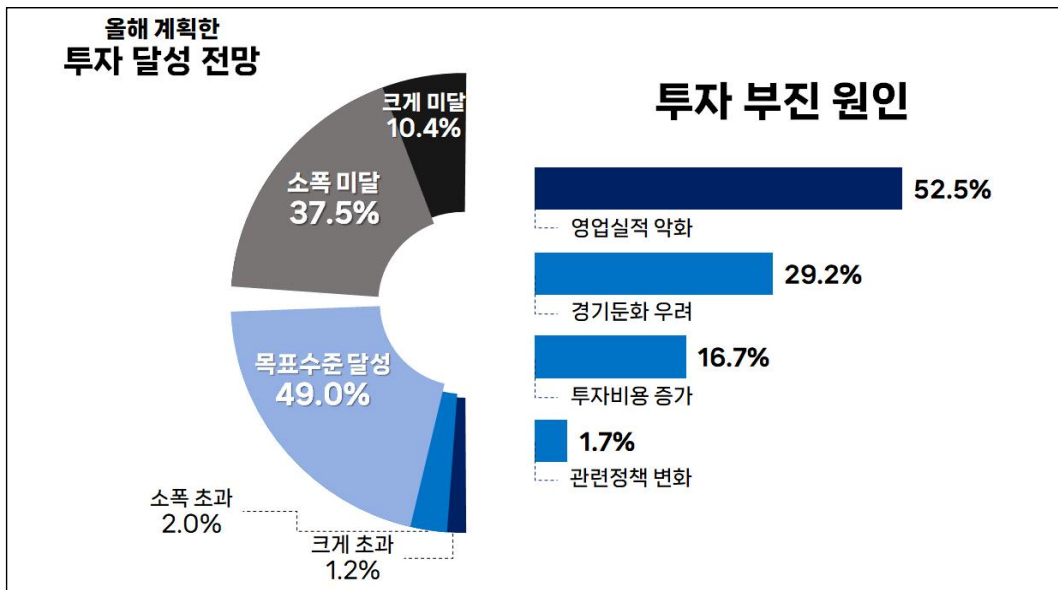
<‘24년도 부산지역 제조업 목표실적(영업이익) 달성 전망 및 실적부진 원인>



○ 전체 조사기업 중 절반만이 연초 계획한 올해 투자실적 달성 전망

- 구간별로, 크게 미달(10%이상) 10.4%, 소폭 미달(10%이내) 37.5%, 목표수준 달성 49.0%, 소폭 초과달성(10%이내) 2.0%, 크게 초과 달성(10%이상) 1.2%로 집계
- 투자실적 미달의 요인으로 영업실적 악화(52.5%)가 가장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외에도 경기둔화 우려(29.2%), 투자비용 증가(16.7%), 관련정책 변화(1.7%) 순

〈'24년도 부산지역 제조업 투자실적 달성 전망〉



5 내수 및 수출 전망

○ 지역 제조업 49.4%가 내년 내수판매 실적 불투명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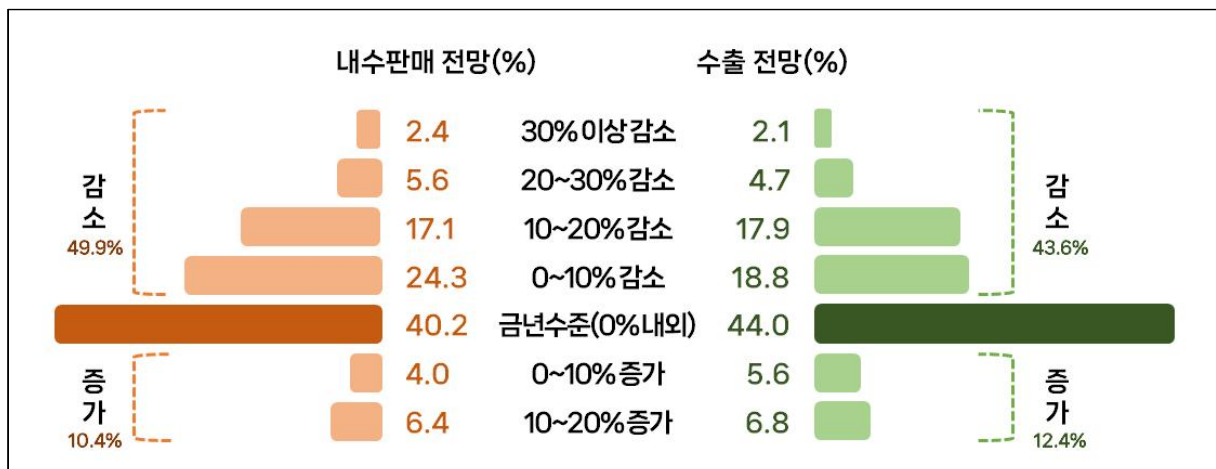
- 올해 대비 내년의 내수판매 전망에 대해 ‘금년수준 유지’ 40.2%, ‘감소’ 49.4%로 나타나, 올해에 이어 지역기업의 국내소비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가 큼

- 감소 수준별로는 ‘0~10% 수준 감소’ 24.3%, ‘10~20% 수준 감소’ 17.1%, ‘20~30% 수준 감소’ 5.6%, ‘30% 이상 감소’ 2.4%로 나타나면서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기업의 부담이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전망
- 반면, 증가는 10.4%(‘0~10% 증가’ 4.0%, ‘10~20% 증가’ 6.4%)로 나타나면서 소비시장 호전을 기대한 기업도 일부 존재

○ 조사기업 43.6%는 내년 수출 감소 전망

- 지역기업은 수출에 대해 금년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업이 44.0%로 가장 많았으며 수출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43.6%, 수출 증가는 12.4%로 나타남
- 이처럼 감소 전망이 높은 것은 올해 지역 제조업의 수출이 2023년 대비 소폭감소(3.0%내외, 11월 누적 기준)했던 점과 지역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·부품의 수요 감소, 美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보편관세 증가 우려 등으로 인해 지역 기업의 수출 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됨
- 세부적으로, 수출 감소는 ‘0~10% 수준 감소’ 18.8%, ‘10~20% 수준 감소’ 17.9%, ‘20~30% 수준 감소’ 4.7%, ‘30% 이상 감소’ 2.1%이며, 수출 증가는 ‘0~10% 수준 증가’ 5.6%, ‘10~20% 수준 증가’ 6.8%로 집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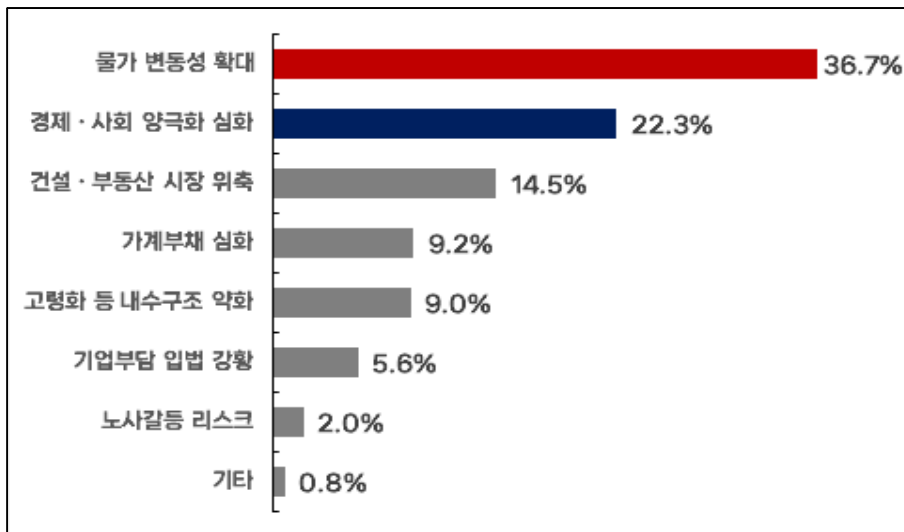
<부산지역 제조업의 2024년 대비 2025년 내수판매 및 수출 전망>



6 대내외 리스크 요인

- 지역 제조업은 내년 가장 큰 경제 위협 대내 리스크 요인으로 ‘물가 변동성’ (36.7%)
 - 지역 제조업은 내년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대내 리스크로 ‘물가 변동성 확대’ (36.7%)와 ‘경제·사회 양극화 심화’ (22.3%), ‘건설·부동산 시장 위축’ (14.5%), ‘가계부채 심화’ (9.2%), ‘고령화 등 내수구조 약화’ (9.0%), ‘기업부담 입법 강화’ (5.6%), ‘노사갈등 리스크’ (2.0%) 등을 꼽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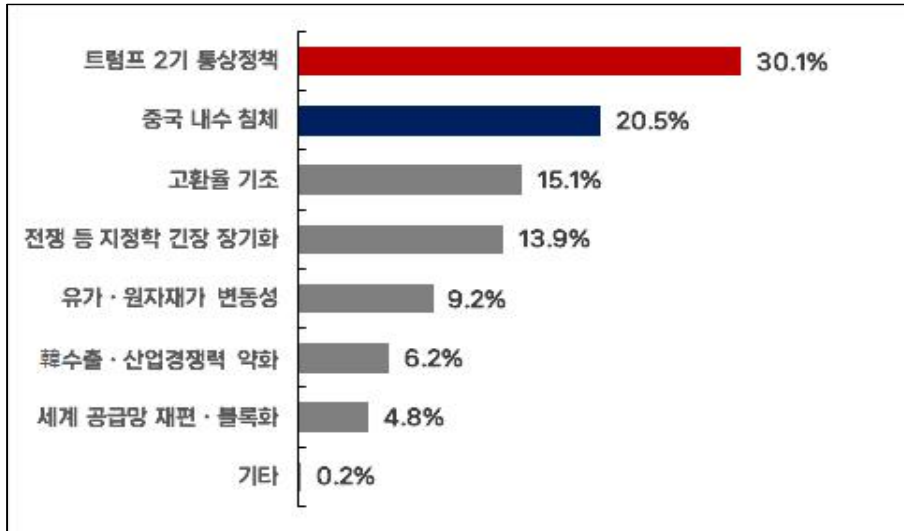
〈2025년 경제 위협 대내 리스크 요인〉



- 조사기업이 꼽은 내년 가장 큰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 ‘트럼프 2기 통상정책’ (30.1%)과 ‘중국 내수 침체’ (20.5%)
 - 이외에도 ‘고환율 기조’ (15.1%)와 ‘전쟁 등 지정학 긴장 장기화’ (13.9%), ‘유가·원자재가 변동성’ (9.2%), ‘韓수출·산업경쟁력 약화’ (6.2%), ‘세계 공급망 재편·블록화’ (4.8%) 등의 순
 - 특히,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변화 예고와 중국의 내수 부진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과잉이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

있는 만큼 지역기업 또한 이를 주요 위험요인으로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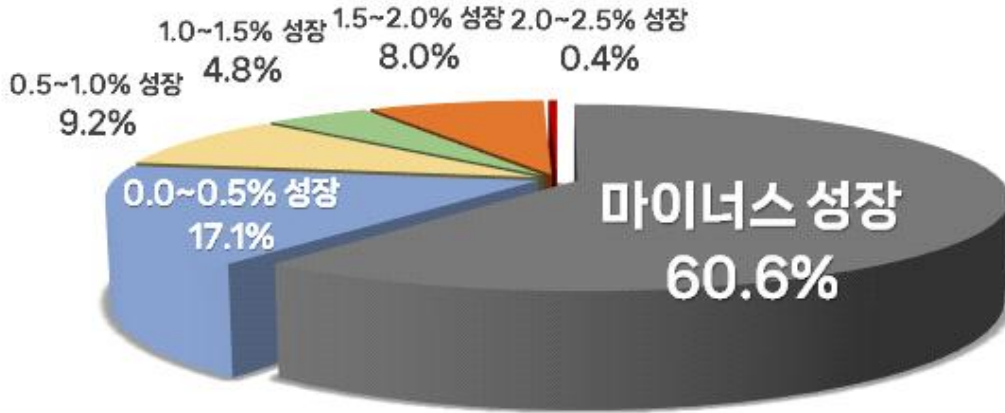
〈2025년 경제 위협 대외 리스크 요인〉



7 한국경제 전망

- 지역기업 60.6%가 내년 한국경제가 역성장 할 것으로 전망
 - 국내외 주요 기관은 2.0%대 성장을 예측한 것과 달리, 지역기업의 전망이 상반된 모습을 나타냄
 - 이는 국내 정책방향 불확실성 확대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심화, 환율 변동성 확대, 내수부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지역기업이 체감하는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됨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됨
 -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 구간별로, ‘마이너스성장’ 60.6%, ‘0.0~0.5% 성장’ 17.1%, ‘0.5~1.0% 성장’ 9.2%, ‘1.0~1.5% 성장’ 4.8%, ‘1.5~2.0% 성장’ 8.0%, ‘2.0~2.5% 성장’ 0.4%로 집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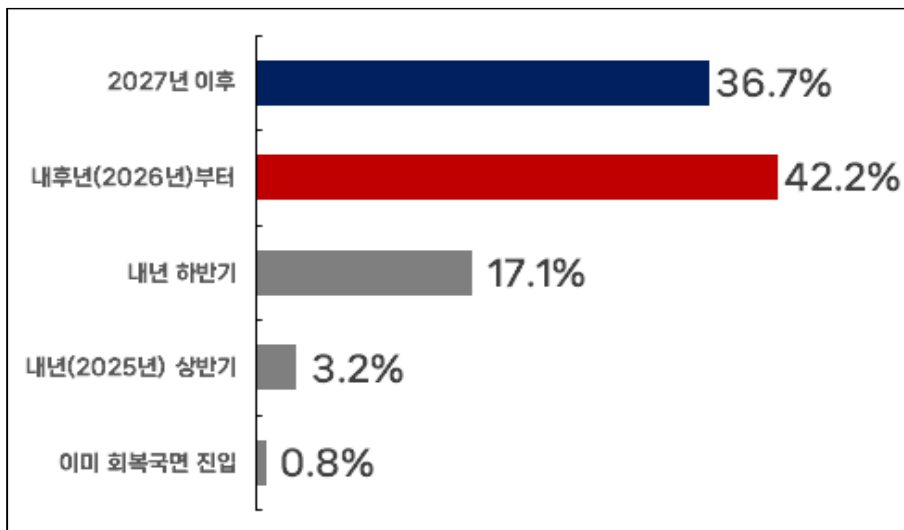
<2025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>



○ 우리나라 경제회복 시기에 대해 지역기업 78.9% 이상이 내년에는 경제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

- 지역기업은 경제회복 시기에 대해 ‘이미 회복국면 진입’ 0.8%, ‘내년 상반기’ 3.2%, ‘내년 하반기’ 17.1%, ‘2026년부터’ 42.2%, ‘2027년 이후’ 36.7%로 응답
- 특히, 내년에 경기 회복을 할 것이란 기대가 20.3%에 불과해, 내년 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지역기업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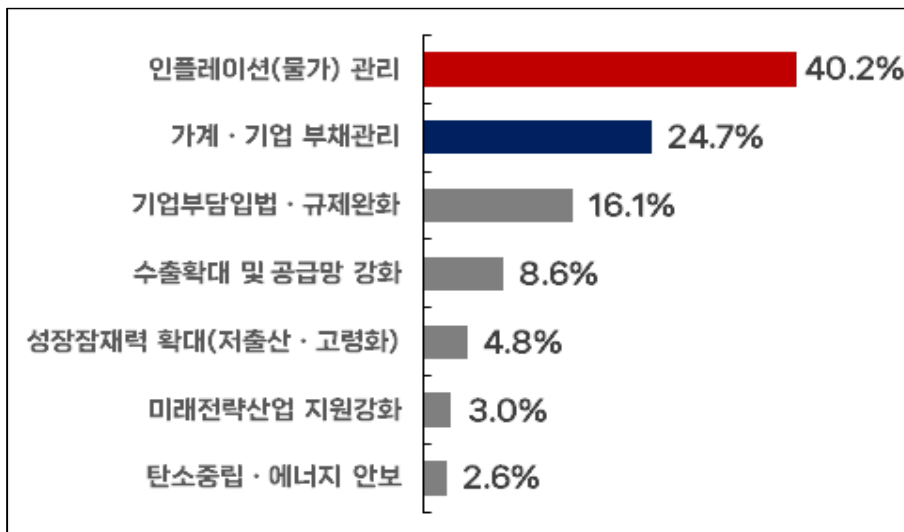
<우리나라 경제회복 시기>



○ 한국 경제 회복을 위해 물가관리 중심의 정책이 가장 필요

- 지역기업은 내년 한국 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당국이 중점을
 뒤야 할 경제정책 분야로 인플레이션(물가) 관리(40.2%), 가계
 · 기업 부채 관리(24.7%), 기업부담입법 · 규제 완화(16.1%), 수출
 확대 및 공급망 강화(8.6%), 성장잠재력 확대(저출산 · 고령화)(4.8%),
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(3.0%), 탄소중립 · 에너지 안보(2.6%)
 순으로 꼽음

<우리나라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당국의 경제정책 분야>



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(BSI)

구분	실적		전망	
	'24.3/4분기	'24.4/4분기	'24.4/4분기	'25.1/4분기
체감경기	86	→ 70	81	→ 66
매출액	86	→ 73	82	→ 75
영업이익	86	→ 73	83	→ 73
설비투자	89	→ 83	90	→ 79
자금사정	86	→ 75	90	→ 75
음·식료품	80	→ 67	60	→ 60
섬유제품	107	→ 53	86	→ 60
의복·모피	60	→ 47	67	→ 47
신발제품	67	→ 47	67	→ 60
화학·고무	85	→ 71	115	→ 88
1차금속	72	→ 48	64	→ 44
조립금속	71	→ 80	57	→ 80
전기·전자	110	→ 90	95	→ 100
기계·장비	103	→ 85	93	→ 62
자동차·부품	75	→ 69	71	→ 52
조선·기자재	110	→ 93	100	→ 83